The Well-Watered Garden
Vol.108 | 2025. 01.

2025 VISION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물댄 동산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14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31



가을이 떠나가네



정청자 명예집사

푸른 잎이 형형색색 예쁜 단풍으로 퍼져
물들어가며
가을 씨앗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들녘
익숙해 지기 전에
삭풍이 불어오는
초겨울로 가는 길

싸늘한 바람결에
예쁜 단풍잎 낙엽으로
한잎 두잎 우수수 떨어지니
앙상한 나뭇가지
보기 민망해
가는 가을 아쉬워

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와 친해져
콧노래를 불러본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부르다
달콤했던 그 추억에 홍조가 되었네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가을을
사랑했는데 여운만 남기고

자연의 오묘한 순리대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우리네 인생은 흔적만 남기고

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모르니
자연의 섭리의 과정이
경이롭기만 하네

시 이야기

집사님의 초겨울로 가는 가을 이야기는 70대 중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20대 연인들의 이야기 같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의 달콤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모두에게 찬란하게 빛난 가을이 남긴 여운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일거야'(perhaps love)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시구詩句이다. 지금에 와서 빛바랜 추억을 떠올려보니 땅으로 내려간 낙엽처럼 한때의 푸르름이 더욱 찬란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 추억의 여운은 오랫동안 진동한다. 어쩌면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늦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올지 모른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이 나고, 그리고 낙엽 지듯 우리네 인생 또한 낙엽을 보면 푸르던 시절을 추상抽象하는 사유思惟 인생이다. 그런 인생길에서 늦가을의 추억을 시인처럼 늘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싶다. (이주하 편집위원)

물댄동산

통권 제108호
The Well-Watered Garden

2025 VISION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새가족 소개	02	홍보출판부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순 소개	04	이다현 집사	하나님의 팬이 아닌 제자가 되는 길
중보기도팀	06	이경애B 권사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시무권사)
노방전도	08	이경옥B 권사	노방전도로 하나 된 기쁨 (1교구)
유치부 종합 발표회	10	박평화 전도사	유치부 가을 종합발표회, 그 현장 속으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12	박경희 권사	23회「홍보매체 세미나」참석 후기
은퇴자 인사말	15	이세엽 장로	2024년 항존직 은퇴 및 추대예식 은퇴자 인사말
신임 교역자 소개	16	이해준 목사	주님, 저에게 어떤 사역을 주시려는지요?
	18	배성진 목사	「거인 PROJECT」 기대하세요~
	20	이승찬 전도사	기도의 동역자
신임 간사 소개	22	김세은 서무간사	예수님과 함께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를 안고...
해외선교사 소식	24	양인모 목사	몽골 선교 현장에서 보내는 편지
고것이 알고싶다	26	홍보출판부 기획취재	Part. Ⅰ 대구기독교역사관
	28		Part. Ⅱ 서성준 부목사 퇴임 인터뷰
	31		Part. Ⅲ 대구제일교회 찬양부
	34		Part. Ⅳ 제일평화의 집
청년세대	36	홍보출판부	찬양버스킹
5분 독서코서	40	홍보출판부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교계 신문 함께 읽기	42	홍보출판부	한국기독공보 [논설] / 한국장로신문 [선교뉴스]
미소 사진	44	장년부	
릴레이 세례교육 소감문	45	목양부	거듭난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신앙에세이	48	김홍석 명예집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찬양소개	50	최성민 전도사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발췌	51	홍보출판부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 근거 10가지
사진으로 보는 교회 소식	52	홍보출판부	
성도광고	64	홍보출판부	상부상조 相扶相助 & 유유상종 類類相從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남진경 _ 3교구 15구역


이민정 _ 4교구 35구역


김준호 _ 3교구 11구역


조한나 _ 1교구 3구역


박덕윤 _ 1교구 10구역


김다운 _ 1교구 26구역


박성순 _ 2교구 3구역


김익규, 허춘선 _ 2교구 36구역


이예림 _ 3교구 5구역


김윤찬 _ 3교구 24구역


이병태, 박지혜 _ 4교구 34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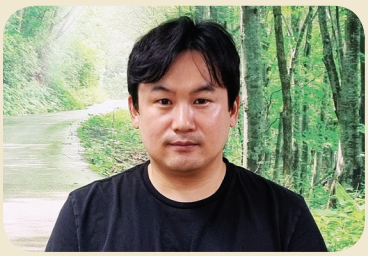

이동화, 서현주 _ 3교구 6구역


황경화 _ 2교구 3구역


박태훈, 정연미 _ 1교구 24구역


김주학 _ 1교구 37구역

Welcome! New Family


우장한 _ 1교구 32구역


김정길, 배계순 _ 1교구 14구역


김동언, 최영애 _ 3교구 15구역


김미정 _ 4교구 33구역


김현민 _ 2교구 22구역


칼리베 페이스 _ 1교구 25구역


무타레 케비 _ 1교구 25구역


니콜레토 모세 _ 1교구 25구역


앤도푸 나나 _ 1교구 25구역


가욤보 기븐 _ 1교구 25구역


칠레라 마파로 _ 1교구 25구역


유우식 _ 3교구 4구역


최석호, 표은지 _ 2교구 7구역

우리순 이야기 **부부 순** (순장 : 이미화집사)

하나님의 팬이 아닌 제자가 되는 길



이다현 집사

대구제일교회에 처음 등록한 코로나 시기, 남편은 믿음이 없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 후 9년간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7살이 된 아이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은 제 믿음보다 더 순수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쯤 우리 부부에게 장규현 목사님은 부부 순모임을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남편에게 예배 외의 교회 모임은 큰 부담이었고, 그를 설득하는 것이 제게도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부부 순모임 참석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 주어야 할 것 같다고 목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후 우리 부부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진짜 기다림과 나 자신을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기에 남편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이 되는 2024년, 우리 부부는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2024년 장규현 목사님께서 다시 부부 순모임에 우리 가족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부부 순모임에 참여하여 인사를 드린 날을 기억합니다. 이미화 집사님과 인사를 하고, 함께하는 귀여운 아이들(유안이, 윤아, 태은, 늦게 함께하게 된 시아네)과 우리 이한이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동생이 없는 이한이에게 하나님께서 부부 순모임 시간에 동생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모여 한 주간 묵상한 큐티 말씀을 서로의 일상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이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며 순모임을 준비하는 시간이 생겼고, '믿음의 가정'을 꿈꾸던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아이, 하나님과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과 은혜를 매일 느끼고 있는 그때, 순장님과 장규현 목사님의 권유로

예비 순장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교육에서 '교회란 무엇인지,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소그룹과 교회 리더십'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물론, 예비 순장 교육도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주마다 주시는 과제가 살짝 어렵기도 하고,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해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찾아보기도 하며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과제를 함께 나누고 확장된 교육을 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길을 엿보는 예비 순장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 큐티 소그룹 인도자 훈련반 >



< 부부순 >

코로나19로 혼자 예배에 참석하고, 삶으로 흩어지는 것이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삶을 나누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던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의 섬김으로 주위를 둘러보게 하였습니다.

어느덧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 예비 순장 교육은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또 마무리하며 주시는 사역을 또 감당하겠다는 예비 순장 교육에 함께 참여하신 장로님의 나눔이 떠오릅니다. 나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서비스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팬으로 대구제일교회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까?' 이번 예비 순장 교육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나'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물댄동산

중보기도팀(시무권사)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이경애B 권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매주일 본당에서 드려지는 1부, 2부, 3부 예배. 그 시간 동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한편에서는 기도의 불씨를 밝히는 손길이 있습니다. 본당 3층에 위치한 자그마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로 예배를 돕는 이들은 바로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 '사랑과 위로의 어머니', '권면과 섬김의 어머니'라 불리는 시무 권사님들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킴이인 시무 권사님들의 임무와 역할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배 안내, 수요예배 기도, 헌금 당번, 성찬기 세척, 장례 예배 참석, 선교와 구제를 위한 서너 차례의 바자회 등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중에서도 '기도의 어머니'라는 별칭에 걸맞게 부서별 기도회와 주일예배 중보기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서별 기도회는 교육부, 경조부, 음악부, 심방부, 봉사부 등 다섯 부서가 요일별로 모여 나라와 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교역자들, 가정과 다음 세대,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불씨를 끊이지 않게 하는 그들의 열정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는 매월 부서별로 정해진 달에 담당자를 정해 1부, 2부, 3부 예배 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배 전 기도

· 예배 준비를 돕는 이들(주차 안내, 영상팀, 찬양팀, 반주자들 등)을 위하여

· 준비 과정이 질서 정연하고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

2. 예배 중 기도

· 예배 전반(찬송, 대표기도, 찬양대, 성경봉독, 설교자. 설교시간 분위기, 같은 시간에 드려지는 다른 기관의 예배 등)의 모든 순서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을 위하여

· 말씀의 생명력이 죽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잠자는 심령을 깨우며, 연약한 심령을 굳건하게 세우는 능력의 선포가 되도록, 하나님을 깊이,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3. 헌금을 위한 기도

· 헌금 드리는 성도들과 헌금 위원의 마음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 물질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감사와 헌신이 넘치도록

· 드려지는 헌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기도

4.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 다음 예배를 위한 준비와, 돌아가는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삶 속에서 예배의 은혜가 이어지도록

·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

이처럼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자가 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온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위해 시무 권사님들은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중보기도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시고 귀한 기도의 자리를 전수해주신 선배 권사님들과 지금도 성실히 헌신하시는 모든 권사님들께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맺으며, 중보기도에 뜻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더 많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손을 들어 올렸던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재현되길 기도합니다. | 물댄동산

노방전도로 하나 된 기쁨



이경옥B 권사
(제1교구장, 2024)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올해는 기후 온난화로 유난히 긴 여름을 보내고, 선선한 계절에 모두 나들이 계획으로 분주한 때에 교회의 여러 부서들도 야외예배를 계획하느라 부산하다. 여러 부서를 봉사하다 보면 야외예배 또한 여러 번 가게 되어 있다.

부족한 저에게 교구장의 중책을 맡겨 주시고는 나들이에 분주한 저에게 "너희들은 잡아 놓은 물고기를 가지고 즐기고 있느냐 밖으로 뛰쳐 나아가 하나님 사랑으로 찬양하라"고 재촉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지혜와 용기를 구하게 하신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근래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들의 활동은 더 공격적인 데 비해 정통교회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정체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어진 사명감이 둔해지고 있는 이때 갑자기 제게 주신 마음. 「구역장님들과 함께하는 노방전도!」 순간 나는 너무 기뻐 손뼉을 쳤다. 하지만 한 해 동안 구역 식구들을 위해 수고하셨고, 또 은퇴하시는 구역장님은 야외예배에 대한 추억의 시간만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하는 부담이 몰려왔다. 그러나 나는 임원들께 조심스럽게 야외 예배 대신 노방전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반대하는 임원이 없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필행 교구 담당 목사님께 부탁하여 교구 회의를 하게 되었다. 처음이라 염려도 조금 있었지만 기쁘게 동참하여 전도의 꽃을 피우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어둠의 세력들과 신천지의 방해를 받지 않게 오로지 기도로 준비하자는 목사님의 기도로 하루하루 준비를 하며, 가슴 설레는 기다림을 보냈다. 교구 예산이 넉넉지 않아 전도용품 등이 염려되었지만 국내선교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도 용품 등을 공급받았고, 또 수요전도 팀에서 파라솔과 테이블 등을 공급받는 등 선하게 이끌어 주셨던 주님께 감사드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10월 29일 오전 10시 100주년 기념관 5층 식당에 모여 열여덟 분의 구역장님의 합심기도와 이필행 목사님의 마무리 출정기도로 각자 전도 용품과 어깨띠를 두르고 신천지만 계속 전도하고 있다는 그곳으로 우리들은 힘차게 나아갔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

(구)중앙파출소 옆 중앙 광장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테이블 양옆에 "사랑합니다""축복합니다"라는 두 개의 배너를 설치하였다. 함께 모여 기도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조별로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나눠주며 하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직장 근무하다 잠깐이라도 함께 전도에 동참하겠다고 달려오신 구역장님. 연세 있으신 권사님도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전도하는 모습에서 주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끄심을 알 수 있었다. 반가이 받아주시는 분, 피해 가시는 분, 부러운 듯 바라보시는 분, "대구제일교회 잘 하시네요"라고 말씀 건네시는 분. 여러 모양의 영혼들을 마주하면서 기쁨은 두 배가 되었다. 어찌 그리도 계획한 시간 안에 준비한 전도 용품도 맞추기라도 한 듯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마무리하게 하시는지...



전도하는 도중 혹시나 신천지가 나타날까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우리들의 전도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차기에는 찬양과 더불어 좀 더 체계적인 모습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한편 신천지는 우리의 반대 방향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천지와 이단은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도 계속 그 곳에서 전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 물댄동산



유치부 가을 종합발표회, 그 현장 속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감사 이야기"

10월 셋째주 오후예배, 박평화 전도사 지도

이주호 가정

처음에는 말씀 암송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주호 스스로가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일 한 구절 한 구절 재미있게 암송하다가도 암송 구절이 많아지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지도 해주시고, 잘한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주호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 가족에게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답니다.

박은찬 가정

아이들이 큰 무대에 올라가면 긴장할 법도 한데 자신 있게 율동과 찬양을 하는 모습이 기특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장이현 가정

아이 인생 첫 발표회! 무대 위에 올라가서 긴장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게 기도하며 준비하였어요.

걱정과 달리 큰 무대에 올라가 열심히 준비한 율동을 하고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내려오면서 "엄마, 내년에 나 또 나갈 거야" 얘기하는 아이는 스스로 너무 뿌듯해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유치부 생활을 통해 우리 이현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서은 가정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대회에 임하는 6세 서은이가 생각보다 많이 큰 거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걱정보다 담대하며, 꽤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대회 때도 용기 있게 참 잘했고,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도 많은 어른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멋지게 잘해준 서은이와 유치부 친구들 모두 최고였습니다.





이라율 가정

교사와 아이들 모두 힘을 모아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힘쓰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종합발표회를 통해 아이들이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선생님, 열심히 연습하고 멋지게 주님께 영광 돌린 유치부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김시은, 김시아 가정

교회에서 하는 발표회가 처음이었던 아이들. 처음이라 낯설고 더 떨렸던 것 같아요. 함께 모여 연습하는 동안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어릴 적 생각도 나서 흐뭇하고 함께 연습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지만, 소극적인 딸들이라 염려가 컸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더 잘 해준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참 행복해요. 아이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잊고 지냈던 입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생각나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윤은성 가정

유치부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은성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싶다는 아이의 말에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참가를 머뭇거렸어요. 너무나 정성스럽게 지도해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따뜻하게 응원 해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은성이에게 참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23회 「홍보매체 세미나」 참석 후기



박경희 권사

- 주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딤후2:8)
- 목적: 홍보매체 및 문화를 통한 선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집중 강의를 시행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선교 전략을 구축한다.
- 일시: 2024년 4월 16일(화) 11:00-16:10
- 장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관 2층 대강당(온 · 오프라인 동시진행)
- 주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홍보전략부

홍보매체 세미나의 개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경북연합회 홍보부장이었기에 참석 압박을 느꼈다. 오프라인만 있었다면 직장을 핑계로 회피할 수도 있었지만, 4월 말까지 보름 동안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기에 시간적인 넉넉함이 참석의 동기를 유발하게 되었다. 교육비가 본인 부담이 아니었고 연합회 부담이었는데 이것 역시 성실하게 세미나 참석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세미나는 개회 예배, 특강, 폐회 예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 예배는 박병애 홍보전략부장의 사회로 이난숙 제1부장의 기도와 고척교회 차동혁 목사님의 '육의 마음 판에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특강은 성균관대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이 기독교 구술 기록 방법론을 강의하셨다. 역사는 기록된 역사만 생각하기 쉽지만, 기록된 역사는 객관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실증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역사이기보다는 엘리트, 지배자 즉 소수의 강자만의 역사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기록된 역사에는 민중의 역사보다는 왕과 귀족의 역사이며 여성보다 남성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역사학의 경향은 '지역', '민'의 역사로 흐르고 있다. 이를 역사학자들은 대안적 역사 쓰기라고 하며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문자를 알 수 없어 기록을 남길 수 없던 시대의 역사는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 초기

기독교 또는 교회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한 것이 많고 그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잃어버릴 것이다.

구술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구술에 의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 「한국 민주화 운동과 종교: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종교인의 내면 동력에 관한 구술 사적 연구」(연규홍 외 9명, 2020)는 민주화 운동을 이끈 종교인 107명의 구술면담을 정리한 것이며 「나의 감사; 한경직 구술자서전」(한경직, 2010)은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기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기사화하고 싶어하였으나 거절하였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이었고 그 감사한 마음을 더 잊어버리기 전에 녹음하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사님 사후에 정리하여 발간한 책이다. 「하나님의 은혜:김계원 자서전」(김계원, 2012)은 강사이신 오제연 교수님이 격변의 현대사의 증인이신 김계원 장군의 인터뷰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베트남 전쟁 종료 후 탈출하지 못하고 공산화된 베트남에서의 삶과 10.26사태에 관련되어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고 4성 장군 예편 후 이등병으로 강등, 다시 사성장군으로 회복하는 파란만장한 개인 삶의 역사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구술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와 방법이 필요하다.

1단계: 구술자를 선정, 접촉, 라포 형성, 구술동의

사전 조사에 의하여 구술자를 선정하고 라포를 형성하여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구술 전에 구술 동의와 구술 자료의 공개 및 활용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2단계: 질문지 작성 후 인터뷰

인터뷰 전에는 반드시 질문지 작성이 필요하며 이것은 구술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 질문지는 철저한 사전조사에 의하여 최대한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예', '아니오'의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나 추상적, 감정적, 공격적인 질문은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구술 상황에 따라 순발력 있게 질문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도 한다.

3단계: 구술자료의 녹취

최근의 인터뷰는 녹화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후에 구술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술한 것은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이때는 구술자의 표정, 몸짓까지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녹취록은 기록자가 임의대로 편집 혹은 요약하는 것은 피하여야 하며 제3자가 녹취할 수는 있지만 면담자와 검독이 필요하며 최후에는 구술자의 검독이 있어야 한다.

4단계: 구술 자료의 검증과 해석

5단계: 구술자료의 텍스트화

4, 5단계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강의 종료 후 참석자들은 5개 조로 나누어 구술 기록 방법론 실습을 하였는데 화면을 통하여 관찰자로 참여하는 것도 흥미로웠다. 조원 중에서 구술자와 면담자를 정하고 인터뷰한 것을 발표하였는데 한 조는 전국연합회 35대 회장을 인터뷰하여 84년부터 87년까지의 여전도회관 건축의 역사를 들었다. 마포삼열 선교사님 소유의 대지를 구입하는 일부터 전국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건물을 건축한 역사를 면담자가 발표하였다. 그 발표를 들으며 나는 어릴 때 우리 집에 두 세트나 있던 여전도회 커피잔이 생각났다. 다른 한 조는 장로님의 구술을 발표하였다. 여자 장로의 당회 입성 과정과 당회에 참석해 보니 남선교회는 상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을 알고 여전도회도 상회비를 지원받도록 협의하였다는 것에 모두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실습 후 강사님의 피드백을 받았다. 숫자는 다시 물어서라도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것과 강의를 듣고 바로 실습하니 결과가 좋다는 말씀을 주셨다. 쉬는 시간 없이 임신자 홍보전략부 차장님의 사회로 폐회 예배로 세미나는 마무리되었다.

우리 교회는 창립 130주년 기념 사업으로 「안의와 선교사 자료집」을 발간 하는 등 역사 기록에 적극적이며 이미 기록되어 책으로 발간된 것만 해도 여러 편이 있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렇지만 생존해 계신 어른들의 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을 구술을 통하여 남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보인다. 올해 5월, 최성해 권사님의 소천으로 우리는 많은 역사를 이미 잃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역사를 잃어버리기 전에 구술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물댄동산



2024년 항존직 은퇴 및 추대예식
은퇴자 인사말



이세엽 장로
(은퇴자 대표)

오늘 복된 주일날에 항존직 은퇴 및 추대 예식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희를 대구제일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서 섬기는 동안 함께해주시고 은퇴 및 추대 예배에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 기간 중 여러모로 부족하였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덕분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지가 있었기에 직분을 잘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어 은퇴자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섬겨온 시간을 뒤돌아보니, 여러 기억들이 뇌리를 스쳐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려 했지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살피는데 부족했고, 전도에 미흡했고, 소외된 이웃을 잘 보살피지 못했고, 어렵게 사시는 성도님들과 교역자님들을 위해 나눔이 부족하여 아쉬운 마음입니다.

저희는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서의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앞으로는 항존직분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새롭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섬기지 못했던 영역들을 돌아보며 심기일전하겠습니다.

더욱이 뜻깊은 일은 담임 목사님 청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대구·경북의 모교회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처음부터 대구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물댄동산

2024년 12월 15일 3부예배
은퇴자 대표 이세엽 장로

주님, 저에게 어떤 사역을 주시려는지요?



이해준 목사
(청년부 지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일(주일) 부임한 이해준 목사입니다.

132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구제일교회를 섬기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만에 지난 11월 5일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기 전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수님께서 '울지마 톤즈'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주셨고 영상에서 나오는 이태석 신부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신대원을 입학하여 선교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방학 중에는 단기선교를 준비하여 나갔습니다. 1학년 때에는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를 2주간 방문하여 단기선교를 하였고 2학년 때는 러시아 카프카즈 지역의 교회와 신학교를 2주간 방문하여 단기선교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저에게 주시는 사명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후 광양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역사회복지와 마을 목회 사역을 하였고 지역선교를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 해외로 단기선교를 다녀오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 담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었는데, 국내외 선교사역들을 비롯한 지역을 섬기는 마을 목회 사역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교회 청년들과 교회 창고를 직접 리모델링하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공유주방 형태의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커피를 담당하여 여러 제품을 판매하였고 판매 수익금은 해외 선교사님의 사역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커피 교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피 교

실을 운영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후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교회와 연결되어 그곳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육부와 청년부 그리고 교회 행정을 담당했고 정기적으로 선교지를 다니며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빈민 지역 선교, 의료, 구제 선교 등 다양한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코로나 기간에도 어린이 보육시설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많은 사역들에 제한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사역과 공부를 해보고 싶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NGO 관련 학과를 편입하여 수업을 들으며 지역사회 선교와 마을 목회 사역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에 부임하면서 이제 어떤 사역들을 시작하고 또 어떤 시간을 만들어갈지 기대하며 또 하루하루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대구제일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물댄동산

< 안신애 사모와 아들 이선율의 첫출석 25. 01. 05 >





< 청년부와 함께 >



< 아들 이선율 >

「거인 PROJECT」 기대하세요~



배성진 목사
(초등 2부 지도)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9월부터 초등 2부를 섬기고 있는 배성진 목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4대째 이어온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목회자이신 부모님께서 믿음의 본을 되어주신 덕분에 예배와 말씀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12살 때부터 목회자의 꿈을 품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20살에 신학교에 진학하여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역은 22살에 처음 시작하여, 삼덕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2년, 하늘샘교회에서 교육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12년을 섬겼습니다. 현재는 조직신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하품어린이선교회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한별(11), 요한(10), 그리고 곧 태어날 성민이까지 다섯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나, 늘 한 해를 마치고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얼굴들과 이름들이 생길 때면, "내가 더 좋은 사역자였다면 그 아이가 신앙의 위기를 이겨냈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은 이제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그 위기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4% 감소했지만, 교회 초등부는 36%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0~6세가 일반(33%), 교회(42%), 중고등학생들이 일반(30%), 교회(38%) 감소로, 감소폭의 차이가 약 10% 내외인 것과 비교할 때, 초등부의 감소 폭의 차이는 32%로 더욱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더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또 아직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더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거인 PROJECT"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등 2부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 2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내용이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말씀을 바탕으로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견고한 믿음의 토대를 갖춘 아이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함께해 주시는 초등 2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넉넉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제일교회와 초등 2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한 교회에서 제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물댄동산



< 권새롬 사모와 딸 배한별, 아들 배요한 >

기도의 동역자



이승찬 전도사
(초등 3부 지도)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1월 10일부로 대구제일교회 초등3부에 부임하게 된 이승찬 전도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의 모습과 삶 가운데 이끌어주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목사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4남매 중, 셋째로 일란성 쌍둥이로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는 제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한 저의 고향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모든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지금도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꾸준한 성실함과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학업에 임했고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때의 배움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대학교 원서를 넣는 모든 곳에 떨어지며 결국 남은 한 곳, 신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불안과 걱정을 갖고 입학하게 된 신학교는 기대와 다르게 잘 적응하며 기본 과정을 수료하기 시작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저의 상황에 맞추어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신학교 재학 중, 바울의 선교 여행길을 따라 터키와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떠났을 때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유적과 바울이 이방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바라보며 성령에 힘입어 담대하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곳,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박해를 피해 지하로, 동굴로 숨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나갔던 곳, 그리고 제 삶의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된 장소는 교회가 아닌, 웅장한 자연경관이 펼쳐진 곳의 한 절벽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의 인도함 속에 저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만남은 온전히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먼 타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통해 귀국 후 바로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선한 길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대구제일교회에 오기 전 섬겼던 교회는 성주의 도흥교회입니다. 140명의 성도님들과 소수의 청년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쳤

으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성도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훈련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오전, 오후 예배 찬양 인도, 아동부에서부터 중고청년부까지의 부서를 맡고, 새벽 기도 설교와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설교 등, 많은 바쁨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저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대구제일교회로 부임하게 된 것도 저의 부족함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가 우선시 되었고, 공동체는 개인이 아닌 뜻을 함께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해 헌신과 기도, 동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는 것입니다. 대구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나갈 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처음 대구제일교회에 와서 본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대구제일교회를 통해 선포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뜻이 담겨있었습니다. 대구는 겉으로 표현을 잘못하는 경상북도라는 특징을 지녔지만, 그 마음만은 어느 지역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된 교회, 그곳에 제일교회가, 제일 공동체가 있다는 생각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향기를 선포하는 제일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사역자와 새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는 교회가 전통 깊은 대구제일교회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맡은 자리에서 동역의 기쁨을 선포하며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제일교회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며, 또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 물댄동산



< 초등 3부와 함께 >

예수님과 함께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를 안고...



김세은 서무간사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란 새로운 환경에 처음 발 들이게 된 서무간사 김세은입니다.

우선,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에서는 장녀이자 사회에서 늘 막내인 제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을 잘 털어놓지 못하는 성격이라 의지할 사람을 찾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믿음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반감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경험이라고는 고교 시절 기독교재단이라 예배를 드렸던 것이 처음입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왜 저렇게 화가 나셨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평온함을 중요시하는 저로서는 떠든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친구 중 교인들도 꽤 있었는데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간식을 제공하고 악기연주나 찬양단이 즐거워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기억에 교회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인들을 통해 접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장소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반면, 다른 장소는 시끄럽게 기도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는 언니를 통해서 청년부 수련회에 따라갔었는데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분위기와 광경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고로 저는 '기도란 조용하게 참석하면 된다'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통성, 방언 기도라는 새로운 경험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교회에 대한 경험담인데 아직은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제가 역사 깊은 대구제일교회의 문화를 알고 적응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많은 생각이 들게 하지만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는 저 자신이기에 불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외관상으로 대구제일교회의 첫 이미지는"대구에 이런 곳이 있었나?"할 만큼 구조물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광객 여행지로도 손꼽힌다고 하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예배 분위기가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느낌이 있어 매 아침에 하는 경건



회와 같이 경건하고 엄숙함으로 관리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며 단순하게 생각해 왔던 문제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나의 시선보다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도록 하며 공감에 힘쓰겠습니다. 가끔은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고, 틀에 박힌 사고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세상에 하나 쉬운 거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제 성격상 자유분방한 면과 차분하게 대응하며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잘할 수 있을지 의무감에 고민하다가도 예수님과 함께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도 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늘 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완벽이 아닐지라도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간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천천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지만 서무 간사로써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3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접하나 앞으로 진행될 믿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를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댄동산



몽골 선교 현장에서 보내는 편지



양인모 목사
(몽골 파송 선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제일교회 파송 선교사 양인모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파송 받고 몽골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선교부,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몽골에서 경험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1. 현지화: 이민이 아닌 선교를 위한 정착에서는 현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몽골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머리도 짧게 깎고, 식사 자리에서는 항상 고기 메뉴 위주로 주문했더니, 함께 일하는 몽골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박샤(선생님), 앞으로 머리 그렇게 깎지 마세요. 그런다고 몽골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안 어울려요." 식사할 때 직원들이 고기가 아닌 김치가 들어간 음식을 시켜 먹으면 제가 묻곤 합니다. "박샤(선생님), 김치 매운데 괜찮아요?"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정말! 저희 몽골 사람들도 김치 좋아해요. 매운 것도 잘 먹어요. 우리는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우리의 음식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말하고,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교사에게 현지화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몽골이 한국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 복음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복음화는 한국 기독교 문화화에 더 가까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수요·금요예배, 헌금, 봉사 등 한국 교회와 성도들처럼 되도록 훈련시키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현재 몽골의 복음화율은 1%에 머물러 있으며, 몽골 개방 이후 33년간 복음의 역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몽골 교회에는 선교사를 대신할 리더(지도자)가 부재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는 한국 선교사처럼 목회할 수 있는 몽골인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몽골 교회를 목회하면서 새벽기도를 새롭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대면으로 모일 수 없게 되어, 온라인(줌)을 통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지만, 몽골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생체 리듬상 맞지 않았습니다. 게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난로를 떼며 생활하기 때문에 보통 해가 뜨는 오전 9~10시에 기상합니다.

결국, 새벽마다 통역을 맡은 몽골 전도사님께서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 등의 질병에 걸리셨고, 10월부터 12월까지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몽골에서는 중산층이 아니면 인터넷 설치가 어렵고, 핸드폰 요금으로 매일 30~50분 정도의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



< 부활절 예배 / 성찬식 모습 >



< 몽골PCK 몽골지도자 사역 / 성경세미나 >



< 방과후교실 / 음악 >



< 대림절 예배 / 설교 >



< 비자 갱신 때 러시아 입국 >

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12월부터는 온라인 새벽예배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3. 경제화: 몽골의 목회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몽골의 경제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후원을 받으며 교회가 운영되고, 한국 선교사들로부터 언어를 배우고 시장경제를 접한 이들이 고소득 직업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몽골 경제는 한국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점점 몽골을 떠나는 현실입니다.

<현지인이 말하는 경제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몽골어 학원에서 저를 가르쳐주시는 박샤(선생님)는 두 곳의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한국으로 취업하러 갔으나 돌아오지 않아 결국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몽골 목회자가 운영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목회자는 외국인 선교사에게 의존하여 교회를 운영했고, 결국 돈을 받고 교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녔지만, 학교, 병원, 취업 등 모든 것을 선교사가 책임지는 구조를 보고 이해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말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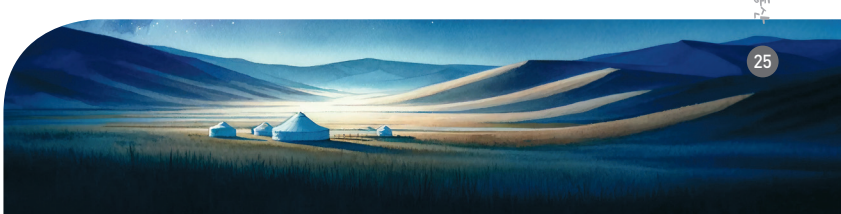
감사한 점은, 수업 시간마다 제가 새벽 설교한 내용이나 주일 설교에 대해 몽골어로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몇 마디밖에 하지 못하지만, 매일 선생님을 위해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준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몽골이라는 특수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 몽골만을 위한 현지 복음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몽골 교회는 한국 교회를 넘어, 몽골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교회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몽골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몽골 선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에서의 사역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몽골 양인모 선교사 드림



고것이 알고싶다

Part. I

대구기독교역사관: 신앙과 섬김의 유산을 밝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대구제일교회 132년 역사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일생을 아낌없이 바친 선교사들의 고귀한 흔적과 신앙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약전골목에 있는 대구기독교역사관은 고딕양식의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근대 건축물로 현재 동산 위 대구제일교회 네 번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전까지 사용되던 대구제일교회 세 번째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대구제일교회이자 미국 북장로회 선교기지였던 이곳이 근대 교육(학교), 의료(병원), 문화(서양음악)의 중심지였던 이 자리에서 그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아 현재 대구제일교회 대구기독교역사위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뜨겁게 부흥하던 교회의 유산들을 보존, 발굴, 정립,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2년 대구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역사관 2층은 대예배실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1층은 역사전시실과 유물 수 장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900년대 초기 선교사 전시실, 1930년대 교회 부흥기 전시실, 초기 교육, 의료, 문화 기록전시실, 1950년대 이후 이상근 목사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10시~17시까지 개방하며 역사관을 관리하시는 우제오 집사님과 해설사의 안내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의 교회, 노회, 중고등학생, 근대 골목 투어 관광객 1,000여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은

◆ 교회 문서 -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구제일교회 당회록, 제직회록, 남전도회록, 여전도회록, 교회일지

◆ 성경, 찬송 - 선한문성경(국한문), 일본어 성경 등

◆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물 - 대구읍성과 대구선교기지 배치도, 희원학교, 순도학교, 희도학교, 동산병원, 계성학교, 신명학교, 계명대학 설립 운영 기록

◆ 초기 필름 기록물 - 브루언 목사님이 미 북장로회 선교본부로 보고한 선교 보고 필름, 이상근





설교집, 신구약 주해 원고, 이상근 목사님 일기장, 저서 등이 전시 보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너무 많은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힘들이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고 묻기만 하면 기록으로 남지 않은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많이 없으신 이유로 대구기독교역사관은 어르신들과 시기별로, 인터뷰로 얼마 남지 않은 기억의 자료를 남기는 일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대구기독교역사관은 대구제일교회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한 안내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0주년 기념 사업으로 새로 발굴된 사진 자료 전시회를 비롯해, 권오현 장로님과 임병규 장로님이 진행해 주시는 피택자교육, 항존직 교육, 재직자 교육, 교육부 세미나 수련회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새기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0주년 기념 사진전 때 감상하시던 여러분들과 70, 80, 90, 100주년 기념사진의 추억하는 선배들의 얼굴을 찾으며 바라보며 소감을 나누던 중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대구제일교회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다시 130주년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처럼 바쁜 시대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을 삶의 우선권을 두고 봉사하며 신앙 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깎아내리는 분도 있지만 신앙과 믿음이란 교회 일을 내 집안일처럼 알고 살았던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의 예배 모습 봉사의 모습 속에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구기독교역사관은 대구제일교회 선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비추면서 대구제일교회 미래를 이어갈 세대를 위해 대구기독교역사관은 신앙 선배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안내하여 온고지신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덧입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물댄동산

· 취재 및 사진: 강영우, 곽지예, 김미진, 양선미, 우제오, 이영숙
본 원고는 역사위원회 위원장 박근배 장로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정리된 글입니다.
(역사위원회 : 박근배, 이형원, 임병규, 강영우, 강이철)





고것이 알고싶다

Part. II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줄 알리라



1. 가족소개

안녕하세요, 대구제일교회를 6년 가까이 섬길 수 있었던 서성준 목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강영주 사모), 큰 딸 서주아, 둘째 서 로, 셋째, 서루아, 막내 서하루 이렇게 여섯 식구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막내 하루는 대구제일교회에서 얻은 귀한 생명이라 우리교회에 대한 더 큰 추억이 담긴 귀한 자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 위해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동기와 주요 여정

사실 저는 군 전역 전까지, 목회자가 되려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역 후 부터 주변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신학생이냐, 전도사님이냐, 선교 준비하느냐 등의 많은 질문이 한 해 내내 들려왔습니다. 멘토 목사님과 상담 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으니 기도해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기도 내내 오히려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 해 연말, 호주 시드니 K.O.S.T.A 집회에 참석 중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목회자의 길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후 학부(공주대학교 컴퓨터전공) 졸업 후, 한 해 동안 C.E.F(어린이전도협회)에서 1년 간 전임간사로 훈련 받았습니다. 이후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목회자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대구제일교회 목회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성도에 대한 이야기

대구제일교회에서 여러 기억 남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한국, 아니 전세계에 불어닥친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사에 전무후무한 일을 마주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특히 대구는 코로나의 시작점과 같은 지역으로 간주되어 2~6월까지 대구시 전체가 완전히 숨죽이듯 활동을 제한하고, 그로 인해 교회마저 약 4개월 이상 오프라인(현장) 예배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목회자로서 분명한 돌파구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까? 라고 기도하며 나름의 수고를 다했던 때가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2천명 가까이 출석하던 성도들은 현장 예배 600명 가까이 떨어졌을 때, '정말 위기구나!'를 크게 느껴졌고, 교회가 나름의 노력을 다해 수고할 때, 다시 성도들이 회복하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대구제일교회 청년 목회를 결산하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

대구제일교회에서 만나 함께 동역하며 청년 공동체를 섬겼던 시간은 행복이었습니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난 청년들 없이 온유하고 따뜻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늘 열정이 앞서고 도전적인 저에게는 또 다른 사역의 방향을 마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소통하고 공유하며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견고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음을 크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사역은 청년들과 격의 없이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저의 방향성에 따라 청년들이 거리감 없이 친근하게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대구제일교회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청년 공동체를 섬겼던 시간이 저에게 너무 큰 영광으로 느껴집니다. 언제 또 이런 청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여운은 아마 목회하는 저의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기억될 것 같습니다.

5. 대구제일교회 일반 목회를 결산하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

청년부과 교육부를 전담하는 전임교역자로 온 저에게, 교구(서북교구, 4교구)를 섬기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선임부목사로 교회 행정을 섬길 수 있었던 시간들은 저를 한 단계 더 성장, 성숙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라는 한 영역을 뛰어넘어, 교구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의 고민과 문제 앞에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관심을 두며 삶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행정을 섬기면서 대구제일교회라는 전체의 영역을 한눈에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청년부, 교구, 행정을 맡았던 시간은 큰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운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참 많이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한계처럼 다가올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들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6. 성도들과 청년들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4-35)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청년들에게도 종종 전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존귀한 동역자임을 늘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의 열매가 대구제일교회에 풍성하게 맺혀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길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건전한 교회관과 신앙관이 잘 정립되어 있어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잘 받는다면 교회에 닥칠 역경을 잘 감당하고, 미래 교회의 훌륭한 기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7. 목사님 또래 성도들을 위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권고사항

요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녀 세대를 향한 우리의 소망,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제 마음 깊이 품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몇 번 공유하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저출산, 비혼 가치가 흐르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청년들과 젊은이 부부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부부,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을 통해 저출산과 비혼을 뚫고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한 세대의 주축으로 설 때가 오리라는 비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되, 부부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삶에서 본이 되도록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말과 행동이 가정, 부모에게로부터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그 누구보다, 그 어디에서든지 생동감 있게 경험하며 믿음의 세대로 든든하게 설 수 있으리라 기대해보며 권면해봅니다.

8. 자녀를 4명을 두셨는데, 특별한 이유는? 그리고 목사님 부부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자녀양육 가치관과 자녀들이 다툴 때 어떻게 대처 하시는지?

창세기의 말씀 "생육하라 번성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점도 있지만, 둘째 아이부터는 새로 나올 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낳았던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실 다음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그때마다 아내와 상의하여 낳다 보니 넷까지 된 것 같습니다. 최소 셋 이상은 낳아야지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 않을까요?(하하~)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만든 폼(양식)이 있는데, 아이들이 돌아가며 인도하며, 사도신경 후 아이들이 알만한 복음성가, 찬송가 포함해서 2~3곡 정도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말씀도 5구절 정도 읽습니다. 한 달 정도 매일 읽으면 자연스레 암송이 됩니다. 이어 매일 다른 주제의 중보기도를 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서로 인도하려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4명의 아이가 있으니 작은 사회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들끼리 풀게 놔두기도 합니다만 과열되면 훈육과 훈계를 하거나 벌도 줄 때도 있습니다.

9. 수도권의 대형교회로 가시는 것에 대한 소감

저의 목회 경력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지금껏 대구에서만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대구를 떠나 낯선 수도권 지역으로 간다는 사실이 참 무겁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라는 부르심 앞에 늘 따라 다니는 숙명! 나그네와 같이 임지를 따라 이동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길 원하시는 훈련과 경험들이 있음을 신뢰하기에! 새로운 지역, 교회에서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정든 대구와 대구제일교회를 뒤로하는 발걸음이 참 무겁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며, 저도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10.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았고, 저로 인하여 섭섭함이 생겼을 수도 있구요. 그렇기에 5년 조금 넘는 시간을 돌아볼 때 저는 대구제일교회에서 너무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겠지만 이 귀한 만남과 동역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해병대 출신이라 해병대 격언을 인용해보면,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처럼 '한번 동역자는 영원한 동역자!'라는 표현과 함께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동역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가길 소망해봅니다. 늘 강건하시고, 다시 만날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 물댄동산

· 취재 및 사진: 최무진, 김원진, 박현아, 박효윤, 안지현, 이상원

본 원고는 서성준 목사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정리된 글입니다.

고것이 알고싶다

Part. Ⅲ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연합찬양대: 은혜로운 선율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번 물댄동산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엄한 의식인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는 연합합창단의 열정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모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합창단원들은 매주 모여 연습에 매진하며, 완벽한 무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은 칸타타를 관람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성탄절 칸타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연합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뷰에 함께해주신 분들은 찬양부장 신승환 장로, 찬양부 총무 김진철 집사, 이번 연합 합창대 지휘를 맡으신 갈릴리 지휘자 유대안 집사, 갈릴리 대장 김상현 집사, 호산나대장 정희영 집사, 시온 지휘자 이재준 집사, 시온대장 지문규 집사입니다.

Q. 2024년 성탄절 축하 연합찬양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12월 크리스마스 연합찬양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합찬양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는 그동안 담임목사님의 사퇴와 공석으로 신앙적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으며, 지금 이를 위하여 우리 온 구성원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합찬양은 매년 해 오던 연합찬양과 달리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소망을 한 곳으로 모으고, 성도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의미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곡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연합찬양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주 연습 때마다 연습실이 터져나가도록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탄절 찬양시 좌.우 찬양대석이 꽉 차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찬양부장 신승환 장로)

Q. 2024년 성탄절 축하 연합찬양대는 갈릴리 찬양대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시죠. 어떻게 연합찬양대를 이끌고 가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의 날은 성탄절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와 그 여파로 인해 우리 교회에서 매년 실시해 오던 성탄절 축하 연합찬양 때 양쪽 찬양대 석에 연합 찬양대가 모두 앉아서 찬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찬양부 부장 장로을 비롯하여 각 찬양대와 대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본당 양쪽 찬양대 석에 앉아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 찬양 대원 모두가 빠짐없이 함께 참석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양쪽 찬양대 석에서 찬양하는 데는 양쪽 찬양대 석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소리가 흩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연습 때 참석하지 않다가 당일 오전에 리허설 때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휘자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음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강조해 온 것처럼 모든 대원이 빠지지 않고 연습에 충실하게 임해야 하며, 무엇보다 칸타타 <기쁨의 여행>의 일곱 곡을 모두 숙지해야 합니다. 파트 간 주고받는 부분들이 많아 당일 찬양 때는 반드시 지휘자의 지휘 비팅을 보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으면 완성도가 높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성탄절 칸타타는 2층 뒤쪽에서 금관악기의 팡파레로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곡 사이에는 목사님의 짧은 선포의 말씀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 곡에서는 평소에 부르는 성탄의 찬송(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 밖에 한 밤 중에, 참 반가운 성도여) 세 곡을 성도들과 함께 제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칸타타 <기쁨의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겐 충만한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 칸타타 연주를 위해 찬양대뿐 아니라 기악 연주자와 지휘자 그리고 행정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Jubilate Deo!(갈릴리 지휘자 유대안 집사)

Q. 연합찬양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연습 일정에 따라 찬양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후원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연합찬양은 갈릴리, 호산나, 시온 3개의 찬양대가 모두 참여합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가능하지만 호흡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찬양부에서는 연합 찬양을 주관하는 찬양대와 연습일정을 논의하고 모든 찬양대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습 일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좀 더 완성된 찬양이 될 수 있기에 관심과 독려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대원이 참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양부 총무 김진철 집사)

Q. 찬양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개 성가대 공통적으로 책정된 예산 부족으로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 파트 운영과 그리고 찬양집 인쇄, 편곡자 사례 등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가대에 대한 당회 차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청년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찬양대도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30대의 인원도 같이 참여해서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는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찬양에 참여하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찬양대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찬양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30~50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모두)

찬양대원들의 세미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찬양 대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찬양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양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찬양 기법과 기술, 그리고 영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깊이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습니다. (시온 대장 지문규 집사)

Q. 대구제일교회에서 찬양대는 현재 어떤 모습이며, 또한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도 감동이 동시에 전달되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개의 파트가 자신을 낮추고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연습참여로 찬양의 질을 올리는게 필요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찬양을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찬양부 총무 김진철 집사)

Q. 이번 성탄 축하 연합 찬양대를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성탄 축하 연합찬양대를 교회 밖으로 오픈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와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과 보안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공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회와 지역사회 간의 협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교회 밖에서의 공연을 추진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재작년 산타 복장 하고 선물 나누는 이벤트와 같은 특별한 기획을 통해, 찬양대의 활동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친목을 도모하고, 교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찬양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로 수요일 오전 예배 후 점심시간에 열리는 수요 음악회는 어떨까요?

이러한 특별 기획과 음악회는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교인들과바깥 이웃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시키며,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찬양대는 더욱 사랑받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온 지휘자 이재준 집사) 물댄동산

· 취재 및 사진: 박문호, 안주현, 이우형, 이정구, 이주하, 허군열
본 원고는 연합찬양대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정리된 글입니다.





고것이 알고싶다

Part. Ⅳ
사랑이 만든 희망의 불빛, '제일평화의집' 25년



제일평화의집, 25년의 세월을 넘어 여전히 '희망의 집'으로

대구제일교회가 IMF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위기에 처한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로 개원한 '제일평화의집'이 올해로 25년을 맞이했다. '고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연말 특집으로 이곳을 방문한 기자는, 개원 초기에 청년부 소속으로 유리창 청소를 하러 왔던 기억이 떠오르며, 25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아 감회를 전했다.

현재 원장으로 계시는 이재걸 목사는 '제일평화의집'의 2대 원장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은 현재 대구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기자에게 "이곳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인 자활과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제일 평화의집, 노숙인의 자활 돕는 '희망의 공간'

'제일평화의집'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숙식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 시설이다. 1998년 대구제일교회는 IMF 외환위기로 급증한 노숙인 문제에 사회봉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원했다. 대구시는 거리로 나오는 수많은 노숙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구제일교회가 이 선한 사업에 힘써 달라고 위탁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제일평화의집은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자활 의지를 높여 주고 있다. 어렵고 힘들 때,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운 사회복지시설에 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매주일 이재걸 목사의 인도로 제일평화의집 거실에서 드리는 주일예배를 생활인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

25년 동안 이어져 온 자활의 여정

제일평화의집의 운영 초기에는 원장 1명, 생활 복지사 1명, 조리원 1명으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이재걸 목사를 포함해 총 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시설은 대구 북구 고성동에 위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건물 2층을 임대해 사용 중이며, 총 80평 규모로 방문 당시 18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시설의 자랑을 해 달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얼굴이 더욱 밝아지시며 여러 모범적인 자활 사례를 연거푸 말씀하셨다. 특히 집에서 쫓겨난 형제가 무일푼으로 들어와서 자립하게 된 사례나, 열심히 일하여 전세 자금을 마련해 독립한 생활인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

다. 제일평화의집은 매년 많은 생활인이 자립하여 퇴소하는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자활 프로그램

제일평화의 집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입소자들은 입소 후 상담을 통해 자활계획을 수립한 후, 자활을 위한 취업 및 금융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정서적 지원, 선진지 견학 등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등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다. 또한, 대구의료원과 곽병원, 경북대학교 병원과 북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진료 및 건강검진도 지원하고 있다.

기자 방문 당시에도 새로운 입소자가 상담받고 있었으며, 입소자들이 주거 자립을 위해 대구 도시개발공사의 설명회를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재걸 목사는 "제일평화의집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사회로 복귀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제일 평화의 집은 여전히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을 만듭니다"



< 평화의집 소개 >



< 입소자 상담중인 모습 >



< 센터내 식당 >





< 선진지 견학 >



< 추수감사절 주일예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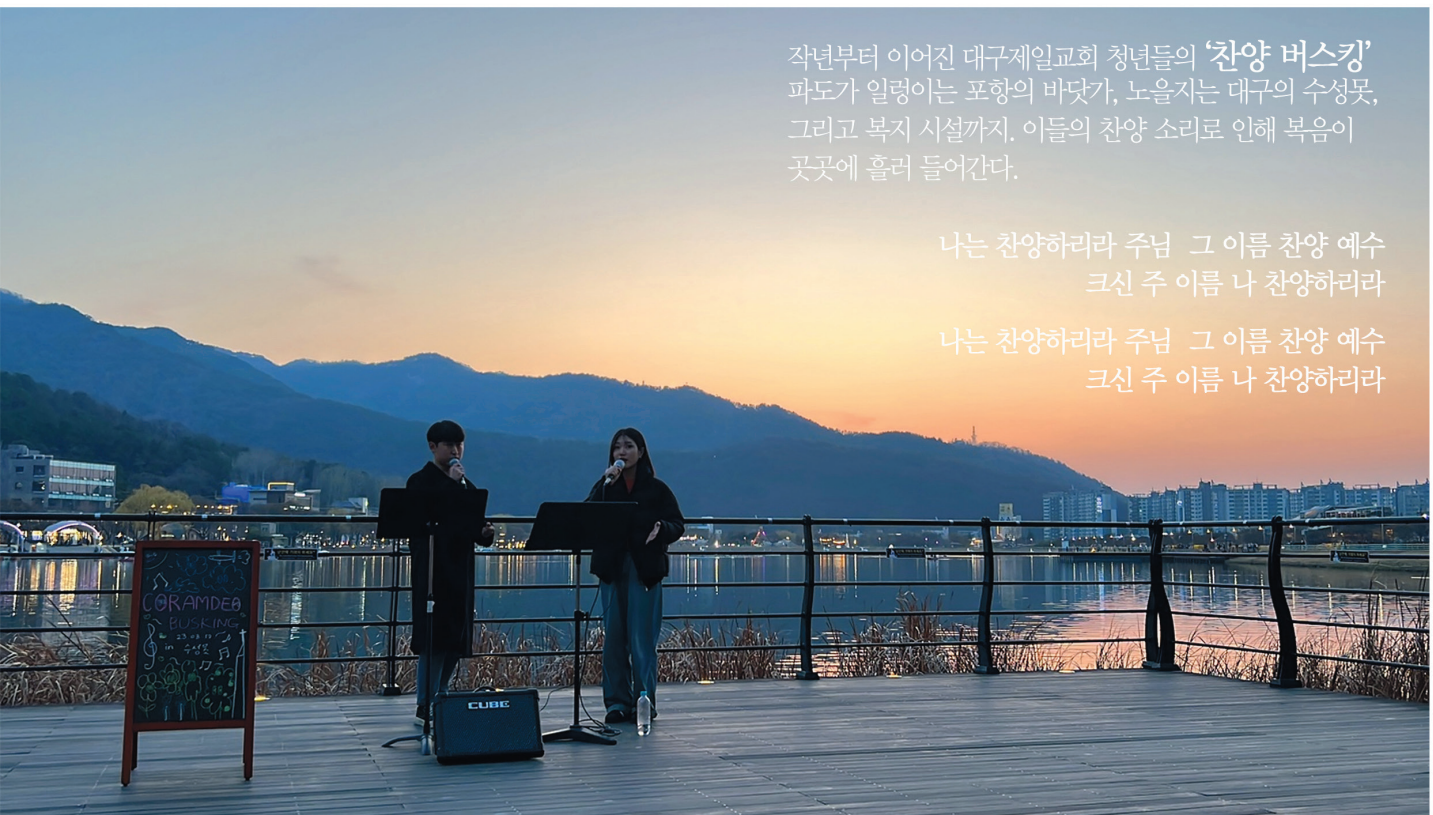
제일평화의집에서 자활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서로 돕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변화의 현장이다. 오늘도 희망의 불빛은 꺼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제일평화의 집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물댄동산

· 취재 및 사진: 이금환

본 원고는 이재걸 목사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정리된 글입니다.

Praise Bus



작년부터 이어진 대구제일교회 청년들의 **'찬양 버스킹'**
파도가 일렁이는 포항의 바닷가, 노을지는 대구의 수성못,
그리고 복지 시설까지. 이들의 찬양 소리로 인해 복음이
곳곳에 흘러 들어간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버스킹 ; 음악가들이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sking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품공동체, '코람데오 찬양팀'의 2023년 팀장 37기 김혜민, 2024년 팀장 36기 박상은, 2025년 팀장 31기 한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부에서 작년부터 '버스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버스킹이 정확히 무얼 하는 것이지요?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음악 공연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는 '찬양 버스킹'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세상에 나가 알리기 위한 복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찬양하는데 왜 저렇게 기쁘지?', '무엇이 저렇게 기쁨을 줄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스킹'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2024년 2월, 청년부에 찬양 사역자로 부임하신 최성민 전도사님께서 포항 바다에서 버스킹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고, 찬양팀의 주된 목적과 방향성, 달란트를 살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대구 수성못과 포항 바닷가에서 하셨는데요.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포항 바닷가에서만 해보려 했으나, '우리가 거하고 있는 대구 땅에서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 대구에서도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수성못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각 장소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곳이었나요? 아니면 어떠한 제약이 있었나요?

포항에서는 바닷가여서 그런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대구 수성못은 유동 인구가 많기도 하고 종교적인 공연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찬양을 주로 하고, 중간에 1곡씩은 가요를 섞기도 했습니다.

'찬양 버스킹'은 '청년부 찬양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찬양팀 외부에서도 참여 신청을 받나요?

찬양 버스킹은 청년부 찬양팀의 1년 사역 중 하나의 사역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외부에서 참여 신청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버스킹 공연에 참석한 공동체 지체들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찬양임을 알아챈 분들은 걸음을 잠시 멈추어 함께 찬양하고 가시기도 하셨고요.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왔는지 반갑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간혹 지나가면서 불쾌감을 내비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응원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 속에 감사함을 누렸습니다.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었을 때, 별도로 준비한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의자라던가... 여러손길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앰프와 의자, 보면대 2개, 마이크만 들고 시작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점차 장비가 늘게 되더라고요. 세번째 버스킹을 할 때는 앰프, 마이크, 건반, 미디어 장비, 보면대, 리드선, 의자, 핫팩 등등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찬양팀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품공동체 지체들도 다 같이 도와주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에 '복음 공연'으로 다녀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복지시설로 생각하게 되었나요?

버스킹의 공간에 대한 한계로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걱정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기쁨을 전달하고자 장소를 탐색하게 되었고, 기독교 재단인 신애요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요양원에서도 코로나 이후 외부 공연이 많이 끊어진 상황이었다고 하여 바로 추진하였지요.

'복음 공연'은 '외부 버스킹'과는 색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장소의 변화와 듣는 청중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 버스킹'을 할 때는 저희가 공연을 하면 지나가던 이들 중에 함께 하고 싶은 이들은 듣다가, 지나가고 싶으면 지나가는. 비교적 자유로운 느낌이었는데요.

'복음 공연'은 아무래도 앞에 듣는 청중이 자리하고 있기에 '무대'의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내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기독교 시설로, 믿음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은 곳이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시는 모습들에 마음이 더욱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라는 측면에서 두 공연 모두 기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기에 감사한 마음은 동일하게 큽니다.

Coramdeo Worship












향후 '버스킹'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 있나요?

2025년 코람데오 찬양팀의 주된 방향성은 '예배자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많은 훈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훈련 중의 하나로, 분기별 청년부 '찬양/기도회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인지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연간 계획에 '복음 공연'을 잡아둔 상태인데, 혹시라도 일정상 변수가 없다면 예정대로 '복음 공연'으로 진행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세상에서의 노래와 달리 찬양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와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줍니다. 저희의 찬양과 공연을 통해 이 감동이 듣는 회중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길 소망해 봅니다.

찬양팀은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찬양팀 '코람데오'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물댄동산

o Team

인터뷰 및 기사 편집 / 곽지예, 김원진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동성애, homo+sexuality 그것을 덮고 있는 장막에 대한 이야기



- 도서명 :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동성애, homo+sexuality 그것을 덮고 있는 장막에 대한 이야기
- 저　자 : 김지연
- 출판사 : 도서출판 사람
- 출간일 : 2024년 5월 7일

국내에 불고 있는 동성애 논란은 유럽과 북미 대륙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동성애 관련 매체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동성 간 성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동성애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언론이나 교육은 증가하고 있지만, 동성애의 심각성이나 폐해를 제대로 다루는 책은 거의 없다.

이렇듯 균형이 깨진 동성애 옹호 위주의 환경 속에서 동성애 미화 일변도가 아닌, 동성 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책이 바로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이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8월 24일 우리 교회(학원선교팀 주관)에서 「성경적 성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물댄동산 107호, 2024년 9월 발간, 23쪽 참조).

이 책에서 저자는 이질, 매독, 임질, 간염, 곤지름, 에이즈 등이 남성 동성애자들 위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보고한 각국 보건 당국의 자료 및 기사들을 인용하고 있다. 각주가 800개에 육박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각 장마다 머리글을 제공하여 요약된 형식으로 읽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의료·보건 상태에 대한 기술이 대부분이나, 여성 동성애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건 당국의 자료도 요약되어 있다. 특히 감염내과 전문의 김준명 연세의대 명예교수, 정신과 전문의 민성길 연세의대 명예교수,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백진희 대장암센터 교수, 이미조 대전 을지대학병원 교수, 임수현 비뇨기과 전문의, 고교 생물학 교 교사 출신 이윤정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인들이 철저하게 감수하여 책의 완성도와 활용도가 매우 높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질병, 예를 들어 이질이나 변실금 등 남성 간 성행위와 관련된 신체 장기에 벌어지는 문제를 잘 정리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저자 김 지 연 소개

부산 출생,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백석대학교 대학원 중독상담학 석사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있다. 슬하에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교육국장을 맡고 있다. 2013년 여름 발표한 '동성애의 확산에 따른 의료보건비용의 증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14년 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의료정책 전문가과정(HPM) 우수 연구상을 수상했다.

간염, 기타 성병, 에이즈 등을 다루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흡연자들이 일반인보다 많이 걸리는 질병들을 거리낌 없이 TV 등에서 공익광고로 알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용감하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실제로 교육청, 학교, 교회, 사기업, 대학 등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면, 그 자리에서 동성애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중단을 결심하기도 한다.

◆ 책속의 픽(Pick)

그는 온라인 게이 사이트에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고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 동성애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탈동성애를 결단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지낸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강의를 듣는 순간 긴 세월 자신을 속여 온 거짓 메시지의 족쇄가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고 탈동성애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되었다고 전화로 알려온 것이다. p.30

호모섹슈얼리티를 한국말로 동성애라고 칭하게 된 자체가 이미 동성 간 성행위를 미화하기 위한 '언어 프레임'에 빠진 것이고 볼 수 있다. p.43

성적으로 그들에게 끌리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동성애인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우정을 동성애라는 단어로 물타기 하는 동성애 옹호 진영의 용어전술에 넘어가지 말라고 조언해 줘야 할 것이다. p.45

◆ 추천사

▷ 김준명 (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한국에이즈예방재단 이사장)

10~20대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로를 조사해 보니, 뜻밖에도 동성 간 성접촉이 가장 주된 감염 경로임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사실과 함께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감염되는 에이즈로부터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실상에 무지하고, 심지어 인정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의 시기를 점차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저서가 일반 독자들에게 동성애의 의학적 폐해와 부작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어 너무나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박진권 (탈동성애자, 탈동성애 상담가)

우리나라는 현재 매년 천 명이 넘는 HIV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성애로부터 탈출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동성애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2년 넘게 상담하며 돕고 있습니다. …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 문제 이전에 생명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 책은 동성애의 참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물댄동산

목차

1장. 건강과 동성애
2장. 동성애자의 건강상태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들
3장. 남성 간 성행위와 항문 주변 질환, 장 질환
4장. 남성 간 성행위와 이질
5장. 남성 간 성행위와 간염
6장. 남성 동성애와 각종 성병
7장.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
부록 「우리 아이들을 사생아가 아닌 친아들로…」, 아이미니스트리 대표 박진권
부록 「국내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의 감염 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註. 위의 내용은 출판사의 안내문과 서평 그리고 도서 내용의 일부를 홍보출판부(위원: 최무진 장로)가 재구성한 것이다.

논설

예수 없는 봉사를 전도로 생각하는 위험한 교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완전한 그리스도인과 완전한 교회가 존재한 적은 없다.

그런데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예수 없는 봉사'를 전도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물론 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없다. 그러나 지 교회를 섬기는 다수의 교역자들은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전도대를 마을 곳곳으로 보내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다(고전1:21).

전도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때로 세상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 긴장과 충돌이 존재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긴장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 간접적인 전도도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으며, 숨겨서도 안 된다. 오늘의 사회가 다문화사회, 다종교사회라 하더라도 전도의 본질과 목적은 달라질 수 없으며 달라져서도 안 된다. 예수님만이 여전히 유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부터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경로대학을 운영해 왔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3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참석했고, 지금은 150명 내외가 출석한다. 경로대학을 운영하면서 참석하는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수용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랑으로 섬겼다. 그러나 경로대학에 참여하는 대다수 노인들은 교회의 섬김에 고마워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으면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전도에 있어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훗날을 기약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뿐 아니라 병행하여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비로소 교회에 주어진 복음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중략) ...

더욱이 완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를 전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완전한 그리스도인과 완전한 교회가 존재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오셨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슬기롭게, 그러나 담대히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기독공보 (2024년 12월 16일)

김승학 목사 / 안동교회

선교뉴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24 10대 선교뉴스 발표



한국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 강대흥 목사, 이하 KWMA)는 지난 12월 11일 서울 노량진 KWMA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0대 선교뉴스를 발표했다.

강대흥 사무총장은 2024년 10대 선교뉴스로 △New Target 2030 △글로벌 사우스 선교 운동 △제22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선교지 이단 문제 대응 및 선교지 이단 대책 실행위원회 준비 △KWMA 지역모임 활성화 △교단 선교회 리더십 초청 간담회 △KWMA 포럼(자신학화, 선교학 교수 모임) △법인이사회(차기리더십 선출) △로잔 선교포럼을 통한 전문인 사역의 일반화 △선교통계를 제시했다.

강 사무총장은 "올 한 해 동안 한국교회의 건강한 선교를 위해 다양하고, 많은 선교적 대화를 나눴다"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 선교의 건강한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액션플랜들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강 사무총장은 선교계의 중요이슈로 △다중심적 선교 △평신도 전문인 사역 △이주민 선교 등을 이야기하고, 'New Target 2030'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New Target 2030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해운대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선택과 집중해야 할 4가지 선교영역으로 '비서구 중심의 선교운동', '이주민 선교', '다음세대 선교', '디지털 선교'를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KWMA는 지난해부터 선교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비서구권으로 옮겨졌음을 진단하고 비서구권 교회와 동반자적인 선교방식이 필요함을 알리는 한편 방법을 제시했으며,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이단 문제 해결을 위해 '선교지 이단 대책 실행위원회'를 신설해 이단 연구가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것 등을 10대 선교뉴스로 선정했다.

한편, 정용구 협동총무는 "KWMA는 국내외 선교 이슈를 진단해 솔루션을 제시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한국교회 및 선교계에 빠르게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로신문 / (2024년 12월 17일) 박성희 기자

미소사진-장년부



황순자 권사　김명희A 권사　신춘지 권사



임혜순 권사　탁칠옥 권사　유현숙 권사

거듭난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세례 및 입교일 24.10.13]





은서연 성도

20년 전 제일교회(약전골목)에서 학습 세례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세례 입교를 권하실 때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건실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일교회에서 바나바님을 통해 더 순조롭게 말씀을 접하고 배우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세례 입교 교육을 통해 놀라운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준 성도

제 여자친구는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랑이 꼭 세례를 받았으면 하는 꿈을 가진 성도인 반면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다니던 성당에서 도 믿음을 갖지 못했던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시작하면서 큰 부담이 있었고, 믿음이 깊은 그녀를 보며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로 가는 것이 맞을까? 억지로 믿음을 가지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되었고, 주일마다 여자친구와 웃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례 교육을 받으며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불빛이 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례 교육용 작은 책자 안에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숨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릴 적 아무 생각 없이 읊조리기만 했던 기도와 말씀들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작은 깨달음을 발판 삼아, 제 행동과 말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주변 이웃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아 조금씩 아껴 쓰며 믿음에 더더욱 다가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군 성도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인식하시는 데 (새 언약의 시작)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진정한 새로운 변화의 초석이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식을 마치고 나니, 문득 옛 국민학교 졸업식이 떠올랐습니다. 끝인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주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따르려 노력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를 따르지 않고 내 자신에게 의지한 채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깨너머로 이해하고 따르려 했던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보다 앞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충실히 따르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고칠 것은 고쳐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김지은 성도

2021년 겨울, 대구제일교회에 처음 온 이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이 처음이었고, 제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행사나 다른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배우자를 따라 점차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부 공동체 생활을 통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던 저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성준 목사님과 청년부 지체들, 그리고 방황하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신자 등록 후 여러사정으로 이제야 세례 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이번 교육은 단순히 일정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받은 교육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세례 교육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성도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며 지었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루하루 하나님보다 세상 욕심과 탐욕으로 힘들어했던 저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저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오늘도 내일

도 걱정 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제일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제일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세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낮은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수민 성도

저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기쁘고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교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를 보내던 저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제 안에서 믿음이 점점 커져감을 느끼며,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제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를 교회로 이끌어주시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지었던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승재 성도(청년부)

초등학생 때부터 매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았음을 많이 느끼고 그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번 세례 교육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화려한 지식보다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되새기며, 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댄동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김홍석 명예집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시 128:1-2).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는데도 모든 것이 내힘과 내 능력으로 의사가 되고 재물의 복도 받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착각을 깊이 회개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 최대의 복이며 형통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교혼합주의는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며 구원과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확실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희미한 비진리에 의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성도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뼈대입니다.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의 절대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는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

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의 성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류의 역사와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극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존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좇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게 될 것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인도만 따라가면 평생을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다윗을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시 103 :17~18).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 물댄동산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최 성 민 전도사
(찬양사역, 청년부 지원)

샬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을 슬슬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 할 준비를 하는 시기이지요. 지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지냈나 돌아보기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대하며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도 물댄동산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떤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어떤 찬양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여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정' 이라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 '직장' 이라는 열심히 땀 흘려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 '교회' 라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 말씀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등 여러 공동체 안에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면 기쁘고 좋은 일들도 많지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를 슬프게 하거나, 서운하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런 여러 감정들은 대부분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유롭게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쉽게 지나갈 수 있을 일인데 서로에게 예민하게 신경쓰고, 집착하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의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신다면 불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감싸안으시고 우리의 깊은 절망, 아픈 상처들을 고치시는 분이시기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서써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비관스런 처지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은 소망없고 절망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의 근원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2004년 12월 그 당시 유명했던 복음성가 가수 '소리엘' 이 음반을 발매하여 큰 인기를 얻었던 곡인데. 20년이 지난 2024년 다시 재조명되어 여러 찬양팀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있는 곡으로 역시 명곡은 명곡이라는 말답게 빠르게 인기를 얻는 곡입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위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 물댄동산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찬양곡 바로듣기 ▶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 근거 10가지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 주장은 주로 법안이 가지는 **부작용과 실효성 문제**, 그리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의 근거**로 제시되는 주요 10가지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유 침해: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이 법안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이유로 동성 결혼식의 사진 촬영을 거부한 사진가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남용 가능성: 차별금지법은 그 모호성 때문에 법적 남용의 위험이 큽니다. 법의 불분명한 조항들이 악용될 여지가 많아,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합리적인 이유로 해고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개인이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조직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3. 표현의 자유 제한: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며, 결국 사회 전반의 창의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부담: 차별금지법 시행 시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요구 사항 충족 등을 위해 시설 변경, 자문 구매,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히 작은 사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금전적 부담이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사회 갈등 증폭: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과도한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집단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에서 특정 소수 집단에게 우대 정책을 적용할 경우, 다른 지원자들은 자신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6. 실효성 문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법적으로 강제되더라도 실제로 사회 내부의 깊이 있는 차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 구현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7. 정부 권한의 확대: 차별금지법은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성향이나 선호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8. 민감한 개인 정보 노출: 법률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게 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서 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정보가 법적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9. 교육의 자유 제한: 차별금지법은 교육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 기관이 특정 사회적 가치나 이념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고,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법의 일률적 적용 문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융통성이 결여되면, 법의 적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다양한 문제점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안이 가져올 언론의 자유 침해, 법적 남용,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은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물댄동산

출처: https://shushu17.tistory.com/595
발췌 : 이문희 장로

2024. 09. 22. 찬양대 헌신예배





2024. 09. 25. ~ 10. 30. 매주 수요일 동산무지개학교





2024. 09. 29. 동성애 및 포괄적차별금지 반대서명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4. 10. 24. ~ 11. 21. 퍼스트스텝 3기









2024. 10. 31. 행전안전부 대구중구청 주관 한국안전훈련





2024. 10. 31. 순장야유회





2024. 11. 01. 한국기독교 사적지협의회 정기총회 전주 호성교회





2024. 11. 10. 청년부 헌신예배





2024. 11. 17. 추수감사절





2024. 11. 17. 추수감사절 예배 후 교구별 만남





2024. 11. 24. 오후예배 이단세미나 부산이음교회 권남궤 목사







2024. 12. 01. 성탄트리 점등식





2024. 12. 08. 달력배부





2024. 12. 08. 금요중보기도팀





2024. 12. 08. 오후예배 김준호 신임 담임목사 첫 설교 및 당회원 다과회





2024. 12. 08. 제직회 및 예배 후 인사





2024. 12. 21. 새가족환영잔치





2024. 12. 22. 유아세례









2024. 12. 22. 아동세례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4. 12. 22. 유아세례









2024. 12. 08. 아동세례





2024.12. 22. 2024 교육부 성탄발표회

부서	형식	내용	지도교사
유치부	축하 인사	이시우·김하은	도현정
영아부	찬양 율동	너와 나의 모습이 고요한 이 밤에	구본영
유아부	성경 암송	누가복음 1:31	이상원
	찬양 율동	랑랑랑 크리스마스	
유치부	찬양 율동	무슨 일이야 숫자송	이건엽·김혜원
초등1부	찬양 율동	천사도 몰랐던 비밀 오 예리 크리스마스	이지원
초등2부	찬양 율동	해피 크리스마스	최신애·이가영
초등3부	난 타	주의 자비가 내려와	김정은
	율 동	내 안에 부어주소서	
중등부	뮤지컬	종소리 울려라	이창구
고등부	합 창	고요한밤 거룩한 밤 그 얘기 들어봤니	홍지수·이하람
합 창	합 창	기쁘다 구주오셨네 (1·4절)	홍지수



사회: 배예진(청년1부 회장), 오상학(청년2부 회장)



축하인사 : 이시우, 김하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


중등부


고등부


2024 교육부 성탄발표회
기쁨의 축제,
성탄
2024.12.22(주일) 오후 3시
대구제일교회 본당
대구제일교회
4.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합 창

2024.12. 25. 성탄예배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4. 09. 22. 신재희 첫출석
(부:신민영 성도, 모:박주은 성도)



2024. 12. 29. 박하늬 첫출석
(부:박지운 집사, 모:박지희 집사)



2024.12. 31. 송구영신 새해맞이예배









상부상조 相扶相助
& 유유상종 類類相從

7번가 피자 반야월점

피자 · 파스타 · 치킨 · 떡볶이 · 홀 · 배달 · 단체예약

박유향 청년 / 대표
053-964-7679
동구 안심로73길 22, 롯데캐슬레전드 상가(반야월 이마트 앞)



★찍어주세요★



짐키친 죽전점

프리미엄 다이어트 식단 · 맛있고 건강한 한끼 식사

손영준 청년 / 대표
010-7172-3727
달서구 와룡로 169 월드마크상가 103-115



★찍어주세요★



본 지면의 광고는 소상업과 자영업을 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획된 무료광고입니다.
많은 참여 주세요 ^^ – 홍보출판부 –

안나사진관

증명 · 여권 · 프로필사진 · 가족사진 · 영정(장수)사진 · 사진복원

이상원B 집사 / 대표
010-3157-5445
달서구 장기로 193, 1층
(본리초등학교 근처)



★찍어주세요★



펄아트미술교습소

아동미술전문 · 소묘 · 수채화 · 아크릴화

김연정 집사 / 원장
010-5267-7072
지산우방타운버스정류장 앞
blog.naver.com/pearl_art_studio2077
인스타그램 @Pearl_art_2077





상부상조 相扶相助
& 유유상종 類類相從

우야꼬 닭강정 대명점

★닭다리 순살만 사용★ 반마리 · 한마리 · 특대 · 반반 · 셋트

민홍주 집사 / 대표
010-9267-1721
남구 명덕로14길 50



★찍어주세요★



빛 공 방

가구 · 인테리어용품 주문제작

이경훈 안수집사 / 대표
010-4996-7407
군위군 소보면 도군로1841
인스타그램 @lightman65073





본 지면의 광고는 소상업과 자영업을 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획된 무료광고입니다.
많은 참여 주세요 ^^ - 홍보출판부 -

본 지면의 광고는 소상업과 자영업을 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획된 무료광고입니다. 많은 참여 주세요 ^^

- 홍보출판부 -



지도목사 이필행
부 장 강영우
부 부 장 박문호
총 무 이상원
회 계 김미진
서 기 박현아

편집위원 곽지예, 김원진, 안주현
양선미, 이영숙, 이우형
이주하, 최무진, 허군열
취재기자 왕혜진, 이금환, 이수경, 전용철
스튜디오 우제오, 박효윤, 이정구
편 집 안지현
발 행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전 화 (053) 253-2615 ~ 7
팩 스 (053) 253-2618
주 소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발 행 일 2025. 01. 19.
홈페이지 www.firstch.org
이 메 일 fch_pub@naver.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간	장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낮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밤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아담스홀
구역장회		(화) 오전10:00	본당지하아담스홀

기관명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2층)
유아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3층)
유치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3층)
초등1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6층)
초등2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7층)
초등3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4층)
중등부	오전 9:30	본당지하아담스홀
고등부	오전 9:30	본당지하베어드홀
청년1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년2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년3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4층)
장년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가족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FM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109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기 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원고 분량

A4 1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0

접수 마감

2025년 04월 19일 (토) 까지
* 원고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E-mail : fch_pub@naver.com

네이버 메일로 원고 접수
또는 홍보출판부 (본당 4층), 행정실
카톡접수 :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유의 사항

원고 접수 시,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 ·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ch2532615@naver.com www.firstch.org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